

오늘도 산책길에서 '우연찮게'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듣게 되었다. "제가 우연찮게 그 곳에 갔는데 아주 좋네요" "내가 우연찮게 그 일을 맡게 됐어" 내 옆을 스쳐간 두 무리가 모두 '우연히' 이라는 말 대신에 '우연찮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같은 한국사람이니 새겨 들지, 만약 외국 사람이 들었다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이처럼 요즘 우리들의 말글살이는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것들이 많다. '너무' 라는 말도 그 중 하나다. '너무' 는 '지나치다' '일맞은 정도를 넘어' 라는 뜻을 나타낸다. 일맞은 정도를 넘었으니, 당연히 '부정적' 인 의미가 전제된다. 그러나 이 말은 뜻을 강조하려다보니 표현이 과장되고 잘못 사용되어 그 본뜻과는 사뭇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해' '너무 기쁘다' 는 이미 일반화되어버렸다. '참' '매우' 따위를 고쳐서 사용해야 올바른 표현인데 별 생각 없이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 인터넷 언어의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 올바른 언어습관을 역설하는 것조차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결석을 한 학생이 결석사유를 알 수 없는 '외계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로 써서 제출했고,



**불자 세상보기**

**고 경 희**  
시인, 한글문화연대 부대표

**우리말글이 천덕꾸러기?**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꾸중을 하나까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의아해 하더라는 것이다. 이 좁 되면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저 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에 급해진다. 이렇게 안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우리말글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거듭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다. '영어 공용화' 나 '영어마을' 이니 하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근시안적 정책들로 우리 국어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더니, 또 이번엔 하루종일 서울시민

의 눈과 발이 뭘 시내버스에 로마자를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고 다니려 한다. 새로운 버스노선과 종류를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서라는 게 그 이유인데, 엄연한 우리말글을 놔두고 왜 로마자를 머리에 이고 다니야 하는지 참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특별시외의 버스에서 우리말글을 제거하고 외국 글자인 로마자 도안을 단다는 것은 주권국가 정성에 어긋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말글이 로마자 다음에 놓이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

언어는 그 민족을 하나로 묶는 중추다. 그 중추 위에 로마자를 세우고 그 새로운 문화적 지배를 자초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전쟁 중이다. 요사이 우리말글에 가해지는 안팎의 상황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당시 지배계층의 논리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인정해있는 국가들의 무서운 질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문화적 공략이 우리 깊숙이 침투해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그 폐해를 저지하고 속아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성과 열정을 결집한 참 한국인으로 거듭 재무장하는 길뿐이다.

강 언덕을 어느새 개망초가 하얗게 덮어버렸다. 오뉴월 우리 산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망초는 원래 우리꽃이 아니라 우리꽃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귀화식물이다. 언젠가 몇 알의 씨앗이 들어왔을 테지만 지금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우리의 온들을 장악해버렸다. 언젠가 우리의 말글살이가 외래종에 밀려난 토종 식물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누구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건학 98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과연 한국불교학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나고 묻는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불교학자가 얼마나 될까? 물론 그동안 동국대가 한국불교학 발전에 끼친 공로는 인정하는 바지만 근래 다른 대학에서도 불교학 전공자가 늘어나면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동국대에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안은 3년전부터 준비되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다. 금년부터 동일한 명칭의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기존 학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강화된 조건 때문에 불교사회문화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재단 결제 과정에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날 제출하여 또 반려당하는 것 보다 학생과 교원의 수급과 단속건물의 공간 확보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하기로 하겠다고 한다. 재단에서 학교경영에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여

**동국대 '불교학 종가' 만들기**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의지는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다. 차체에 불교학부의 발전에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한국불교학의 종가적인 위상을 되찾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동국의 100년 역사는 불교학의 역사이다. 현재 불교학부에 입학정원이 불교학과 35명, 인도철학과 17명, 선학과 18명이다. 이 상태에서는 불교학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동국대는 어떠한 분야의 특성화 보다 불교학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대학개방의 세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국대는 우선 불교학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원의 적정성 문제, 우수학생 영입, 현실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편, 세계화에 걸맞는 우수한 교수의 수급,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급자의 의지와 재단, 종단, 동문, 교수들의 개혁적 의지와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먼저 불교대학을 살리면서 동시에 연구중심의 우수한 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도 발전시켜야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신(동국대 교수)

**468호 '7천비구니...' 기사에 대한 반론**

현대불교신문 468호 15면에 '7천비구니 대변하는 모인페야' 라는 독자투고 가 있었다. 내용으로 보아 투고한 '스마일' 이라는 분은 비구니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으로 보인다. 비구니회의 구성이나 조직 또는 역할과 계획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보다 못미치는 듯하여 냉소적인 비판으로 일관하여 질타하였고, 비구니회에 대한 숙저된 지식과 비구니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비구니회에 문의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 어린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것은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스마일'의 글을 보지만 하고 모든 이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했다는 모르지만 이성적인 식견이 없이 그냥 기사화하였고 이를 7천여 비구니에게 신문으로 알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문은 그 보도가 공정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신문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신뢰하기에 진지하게 신문을 대한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이보다 더한 승가의 대변이고 진리의 메시지를 사방에 일리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불교신문에 비구니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결리점이 없는 평화의 소리를 게재한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기사로 해서 비구니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는 빠르게 알도록 해야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특별기고**

**불미전 30년, 이제 전망을 갖도록 하자**

무엇보다 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하여 제20회에 즈음하여 '제언' 한마디를 한 것이다. 이는 불미전의 역사가 30년이라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30년이라 적지 않은 세월의 축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성과를 이룩했는가. 이 대목에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제언에 대해 불교미술가와 주최측인 조계종 문화국장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나의 견해와 입장을 같이한 현역작가의 글도 발표되었다. 이렇듯 뜨거운 반응은 송구스럽기 그지 없게 한다.

나의 제언은 단순했다. 역사도 흘렸으니 이제 불교집안만의 행사에서 일반 미술계를 아우를 수 있는 미술전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전통미술의 복제와 창작품의 차이를 생각하고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전통미술 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전통미술과 복제 혹은 창의성의 결여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나는 범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염원한다. 사찰의 성물과 미술전의 창작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치루어지는 전시는 창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미술이라는 단어에 이미 창의성이란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술계와 무관한 미술전, 그것도 3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불미전은 아

마 '세계 유일의 전시'일지 모른다. 여기서 세계 유일 운운의 표현은 불미전 주최측이 언론사에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결코 내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었다. 또한 현대미술(창작) 분야의 제와 관련은 당시 <불교신문>의 기사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다.

우리의 불교미술은 글자 그대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찬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불교미술의 찬란한 전통이 오늘에도 살아 우리들 곁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술전에서도 이와 같은 희망이

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불미전이 국내의 현역 미술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 아니 외국 손님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미술전이 되기를 꿈꾸어 본 것이다.

몇 십억 혹은 몇 백억 원의 불사를 소화해 내는 불교계의 역량을 염두에 둔다면, 불교비엔날레 하나 개최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의지이다. 하여 비전이 관건이다. 전망이 없는 미술전은 암담하다.

불미전 30년, 이제 전망을 갖도록 하자. 장단기의 계획을 수립하여 불교미술의 찬란한 전통과 오늘의 미술을 국제무대에 올려놓도록 하자. 예산타령보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불미전의 장르 구분조차 무색해

는 시대를 올 것이다. 멀티 미디어의 시대이다. 오늘의 젊은이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불교미술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현재의 상황이 만족할 수준인가. 불미전은 전문화의 기획에 의한 특별전을 수용하여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전통 불교미술일 수도 있고, 외국의 전통적 불교미술일 수도 있고, 해외의 현역작가의 작품일 수도 있다. 아니 이렇듯 다양한 불교미술이 하나의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지는 특별전을 들 수만 있다면, 이는 꿈에 불과한 것인가. 다양한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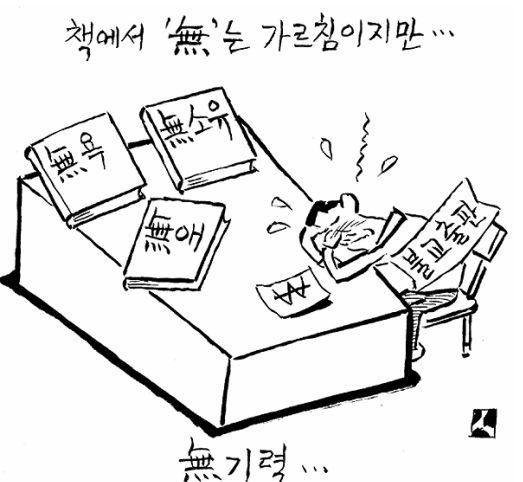
야말로 불교미술의 국제적 향연을 개최할 수 있는 날, 이는 꿈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 전망의 유무이다. 더불어 그런 일을 진행시킬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재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불교미술관 하나 반반하게 있는가.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고 있는가. 아니 현역작가에게 창작의 열기를 넣어 준 적이 있는가.

예술처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포교의 차원에서 예술분야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재를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전망을 공추 세워야 한다. 이런 커다란 그림 속에서 불미전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30년의 세월을 염두에 두고 밀어보는 한 비평가의 품인지도 모른다. 불미전의 발전을 축원한다. 윤범모(미술평론가·경원대 교수)

**특별전 수용해 대중 호응 이끌어야**

**'연대' 민명** 심민섭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체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도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상:**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 연수기간:** 2004년 6월 25일 ~ 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 장소:**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 수강료:**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 모집인원:** 50명(선착순)
- 신청방법:**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신청기간:** 2004년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 문의처:**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안기장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우리 가족에게**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립대 오가피 제1차 성광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전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